

광주·전남 올 겨울 '눈 폭탄' 빈발...1월 '반짝 추위'

2월부터 다시 따뜻한 겨울
강수량·기온 평년 수준
지난해 51년만에 최고 기온
9월 더위 4.4도 높은 26.4도

광주·전남에서 이번달 '반짝 추위'와 따뜻한 날씨가 반복된다. 2월부터는 따뜻한 겨울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오는 10일까지는 광주·전남에 최대 20cm의 눈이 추가로 내리는 등 영하권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9일 한반도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9~영하3도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10일은 아침 최저기온 영하13~영하4도에 분포해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겠다.
오는 11일에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9~영하1도에 머무르다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올라 낮 최고기온이 2~6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1월 동안 한반도 북쪽 상공에 머물고 있는 절리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일시적인 한파가 반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반도 주변의 대기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탓에 절리저기압이 한반도 북쪽 상공에 머무르면서 찬 공기를 불러들였다. 공기 흐름이 점차 해소되면서 기온이 오르는 것이다. 절리저기압은 중국 북쪽의 편서풍에서 떨어져 나온 저기압이 대기 상층의 제트기류를 타고 분리되면서 형성된 것으로 북극의 차가운 공기를 머금고 있다.
2월부터는 티베트 지역에 눈이 적게 내린 여파로 동아시아 부근으로 고기압성 순환이 형성돼 한반도 기온이 평년(2.6~3.8도)보다 높을 확률이 50%, 비습할 확률이 30%로 점쳐졌다. 강수량 역시 평년(32.4~49.5cm)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다.
이번 겨울 강수량(강설량) 자체는 평년(16.9~37.4cm)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폭설이 내리는 현상이 빈발할 전망이다.
올해 한반도 근해의 해기차(해수면과 대기 온도 차이)가 커지면서 수증기 양이 많아져 눈구름이 크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상청은 "서해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2~3도 가량 높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눈구름이 크게 형성돼 많은 눈이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전남에는 지난 7일부터 이틀에 걸쳐 눈이 내렸다. 적설량은 곡성 옥과 8.8cm, 광양백운산 8.7cm, 담양 8.5cm, 화순 백야면 8.0cm, 장성 7.2cm, 광주 6.3cm, 영광군 5.5cm, 함평 월야 4.4cm, 구

례 4.3cm, 보성 북내 3.4cm 등이다.
이번 눈으로 광주소방본부에는 낙상 신고가 4건 접수됐으며, 전남소방본부에는 16건(낙상사고 1건, 교통사고 9건, 안전조치 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눈은 10일까지 광주·전남에 5~15cm, 많은 곳은 20cm 이상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8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담양·장성·영광에 대설주의보를 발표했다. 광주와 나주·곡성·구례·화순·영암·무안·함평·목포·신안(흑산면 제외)에는 대설예비특보를 발표했다.
한편, 지난 2024년은 광주·전남이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다.
기상청이 8일 발표한 '2024년 연 기후특성'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의 연평균 기온은 15.9도로, 기상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래 가장 높은 평균기온은 기록했다. 월 평균기온 역시 모두 평년보다 높았고, 6개월(2월·4월·6월·8월·9월·10월)에서 역대 월평균 기온 1위를 경신했다. 특히 여름철 폭염이 9월까지 이례적으로 이어지며 9월 평균기온은 26.4도로 평년(22도) 대비 4.4도 높았다.
가을까지 폭염이 이어지면서 폭염일수는 33.1일, 열대야일수는 37.8일로 모두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ACC~전남대병원 양방향 통행 8일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전남대병원 구간의 도로가 기존 일방통행에서 양방향 통행으로 변경돼 차량들이 오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대학들 15년만에 등록금 올리나...조선대·호남대는 동결

광주대·동신대 등 고민 중
최장 14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해온 광주지역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인상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일부 대학은 올해도 동결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결정을 미룬 채 수도권 대학들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8일 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금을 4.9% 인상했던 조선대는 올해는 동결할 방침이다.
조선대는 지난해 15년 만에 학부 등록금을 인상했던 만큼 올해 또 인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지난 6일 1차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어 동결을 결정했다.
호남대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지난해 말 내부

방침을 정했으며, 오는 17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결정할 예정이다.
2012년부터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고 있는 호남대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동결과 인상에 대한 학생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다른 대학들은 아직 등록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대는 이달 중순께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으며, 송원대는 동결과 소폭 인상을 놓고 고심 중이다.
3% 안팎이라도 인상할 것인지 아니면 동결할 것 인지를 이달 중에 회의를 열어 결정할 예정이다.
남부대, 광주여대, 나주 동신대도 사정은 비슷하다.
동신대도 다른 대학들처럼 등록금을 올리지 못한

탓에 학생 장학금 확대나 노후 시설 보수 교체 등 교육환경개선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동신대는 오는 21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상 여부를 논의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오후 전남대를 비롯한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와 영상의회의 방식의 간담회를 열고 2025학년도 등록금 동결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총장들은 등록금 인상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뒤 최종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교육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수도권에서는 서강대와 국민대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상을 결정했으며 한양대, 중앙대, 홍익대 등 서울 주요 사립대들이 줄줄이 인상을 검토 중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

"공조본, 이번엔 반드시尹 체포하라"

광주비상행동 "국민 뜻 따르는 공권력 입증해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을 재발부하하자 광주 지역 시민단체가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윤 대통령을 반드시 체포할 것을 촉구했다.
윤석열정권각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광주비상행동)은 8일 성명서를 내고 "공조본은 반드시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스스로 국

민 뜻에 따르는 공권력을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광주비상행동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광주 지역 170여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 단체다.
광주비상행동은 "공조본은 시민들의 열망을 배신하고 내란 세력에 굴복해 체포 영장 집행을 중지했고, 그 결과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고, 다시 권력

을 잡아보겠다는 이들을 특세하게 했다"며 "법원이 다시 한번 윤석열 체포 영장을 발부하한 것은 '다시 한번 내란을 진압하라'는 국민의 엄정한 명령을 공조본에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조본은 이번에는 반드시 공권력이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체포를 방해하는 자와 내란을 정당화하며 헌정 중단 사태의 연장을 획책하는 세력들에게도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주 도심 아파트 폐건전지함서 탄환 발견

광주 도심 한 아파트에서 실탄과 최루탄 등이 발견돼 경찰과 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광주시 남구 진월동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실탄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한 아파트 주민이 분리수거 도중 재활용쓰레기 통 안에서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쓰레기통에서는 M16 소총에 쓰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실탄(구경 5.56mm) 2점과 탄두 5점, 최

루탄 1점, 균용 나침반 1점 등이 발견됐다. 총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실탄과 최루탄, 나침반 모두 1979년도, 1987년도에 생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실탄, 최루탄은 사용 불가능한 상태로 폭발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잠정 결론짓고 실탄을 수거했다.
경찰은 실탄 등이 버려진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MD MODERN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